

보도시점 (온라인) 2026. 7. 29.(수) 18:00
(지 면) 2026. 7. 30.(목) 조간

군(軍) 유희부지가 주민 소득으로, 윤호중 장관, 햇빛소득마을 찾아 점검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햇빛소득마을 후보지 준비 상황 점검 및 격려
- 성공적인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강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29일(수), 주민 주도의 새로운 에너지 자치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후보지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상판리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사업 준비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민 주도의 새로운 에너지 자치, 발전 수익의 마을 환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햇빛소득마을은 기존의 일방적인 공급자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수요자 중심의 혁신적 에너지 자치 모델이다. 마을 유희부지나 공공부지, 저수지, 농지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마을 단위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발전소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마을 공동체의 복지 증진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고스란히 환원된다. 이에 따라 마을 공동체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끄는 사업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당 사업은 올해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3월 31일 공고를 시작으로 5월까지 1차 접수를 마쳤으며, 오는 7월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7월까지 2차 접수를 진행해 오는 9월 중 추가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군(軍) 유휴부지 활용 상판리 마을 점검 및 주민 간담회 개최

윤 장관은 이날 수도기계화보병사단(맹호부대)에서 훈련장으로 쓰였던 유휴부지를 찾아, 민관군 협력 우수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후보지 현장을 구석구석 둘러보며 사업 준비 현황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이어, 조종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마을 협동조합 구성 현황과 사업부지 활용 방안, 약 1MW 규모로 준비 중인 지상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경청하며, 주민들과 함께 현실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오는 7월까지 진행되는 2차 공모에 더 많은 마을이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더불어, 지역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햇빛소득마을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각 지방정부는 주민들께서 행정 절차나 규제에 의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라고 당부하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새로운 에너지 자치 혁신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햇빛소득마을추진단 지원총괄과	책임자	과 장	고현덕 (044-205-6842)
		담당자	서기관	정재형 (044-205-6843)

